

기후위기 극복 · 탄소중립도시 실현 협력

전주 전역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

전주시, 지역 농협 5개소와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농협 내 태양광 시설 · 전기충전소 설치 등 추진

전주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전폭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동참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혁 NH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북전주농협조합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우철 전주임예농협조합장은 2일 시청실에서 '전주시-농협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혁 NH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북전주농협조합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우철 전주임예농협조합장은 2일 시청실에서 '전주시-농협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민을 위한 금리우대 서비스 지원 ▲일상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실천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ESG 사업 추진 시 전주시 탄소중립 사업과의 연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농협 5개소에서는 전주시의 탄소중립 계획에 발맞춰 농협별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농협 내에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에는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법인 리스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또 농협 확장·이전이나 건물을 신·개축하는 경우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모든

전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서 단열시설을 보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는 금리 우대 및 환전수수료 지원 혜택을 주고, 시가 추진하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홍보물 배부 등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밖에 시와 지역 농협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점심시간 불필요한 전등 소등 ▲전자기기 에너지절감 시스템 기반 확충(전자타이머콘센트 등) ▲탄소중립 캠페인 지속 실시 등 일상 생활 속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전북은행과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시는 금융기관은 물론 각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천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을 방침이다.

송혁 NH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시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숨 쉬며 꿈꾸고 자라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계를 비롯한 기관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50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전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전환 ▲천만그루 정원도시 확대 조성 ▲폐기물 저감 및 녹색지원 전환 ▲지역 먹거리 활성화 및 친환경 농부 지원 ▲시민 환경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시스템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역 확대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장난감도서관은 완산구 지역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를 덕진구를 포함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는 만 5세 이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전화 신청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운영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 완산센터 장난감도서관에는 310종, 629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기간은 14박 15일로 매회 2점 이내로 대여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은 장난감도서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를 통해 장난감 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는 다양한 장난감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조감도.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첫 삽'

전주시, 내년 10월까지 건립 위한 공사 착수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공간이 될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첫 삽을 떴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중동 852번지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에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1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909㎡(1184평)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1층에는 25m, 6라인의 수영장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과 야외 테라스가 들어선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공간 배치가 조화로운 설계를 선정해 올해 5월 최종 설계를 마쳤다.

이와 관련 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 놀이터와 공연장, 맘카페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혁신센터도 조성하고 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5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체육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정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전시·교육 위한 유물 공개 구입

전주시가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박물관 전시와 교육,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유물 매도 신청을 받는다.

유물 구입 대상은 ▲전주 역사·문화·산업 분야 관련 근현대사 자료 ▲조선왕실 관련 유물 ▲전라북도 및 전주 역사 자료 등과 관련된 서적, 문서, 사진, 물품 등이다. 단,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나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은 제외된다. 매도 자격은 개인소장자(중증 포함)이거나 문화재매매업자, 법인·단체 등이다.

매도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유물매도신청서와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등을 작성해 유물사진

과 함께 우편(완산구 송곡개로 259,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또는 이메일(jonju-museum@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04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접수된 유물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사와 감정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구입유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알려 나가기 위해 관련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개인 소장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야호학교 퇴움활동단 7일까지 모집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7일까지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021 야호학교 퇴움활동단' 15명을 모집한다.

야호학교 퇴움활동단은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주말과 방과 후에 스스로 활동거리를 찾고 함께 배우며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맡는다.

시는 퇴움활동단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친 양성교육을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팀별 길잡이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양성교육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저녁에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야호학교 소개와 운영 방침 ▲퇴움활동단 기본 소양교육 ▲

티칭말고 코칭하기, 4단계 코칭질문 기법 ▲의사소통과 팀 빌딩, 아이디어 도출 방법 ▲청소년 자치활동 지도 방법 ▲'시작된 변화' 사례 교육 ▲퍼실리테이션 교육 등이다.

행진코칭연구소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소셜디자이너그룹 BOME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하면 수료된다.

퇴움활동단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h20030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나 교원자격증, 청소년 관련 활동 경험자는 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